



통합 시군 상생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재석 33명 중 찬성 23표 · 반대 9표 · 기권 1표로 가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시군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지난 21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40명 중 재석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기명 표결에 앞서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이 조례안 반대를,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찬성 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반대와 찬성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먼저 이수진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의 경우 조례 제4조 주민 지원 예산은 강행규정이 아님에도 강행규정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상생 조례'가 아닌 '상쟁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의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안을) 던져 놓았다"며 "통합은 지역민이 주체가 돼야 하는 만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호소했다.

반면 염영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 몸부림인 만큼 꼭 통과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피력해서 주목받았다.

이보다 앞서 '신상 발언'에 나선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긴급현안질문" 신청 요구서 제출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장과 구두상으로 합의했으나, 상임위원장이 서명을 해 주지 않아 현안 질문이 무산됐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완주 전주 통합결사 반대와 시군 상생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강력하게 표출했다.

도의회에서는 완주군민의 완강한 반대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시위 등에 대비해 경비 직원들을 보강 배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 문을 잠그고 출입 카드로 출입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우려했던 찬반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완주 전주 통합 반대 측의 저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역 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3~5일 이

내에 전북자치도로 의견 통보된 후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향후 완주 전주 행정 통합 과정에서 법적 정책적 혼선이 해소됐다.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 통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번 제정된 조례로 인해 완주 전주의 행정 통합으로 인한 과도기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완주군민의 반대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완주를 지역구로 둔 윤수봉 의원과 권요안 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사발투혼을 하는 등 완강하게 조례 제정에 반대했으며, 윤수봉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반대토론을 주장하는 등 조례안 제정을 반대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상생 조례안 가결로 오는 3월 13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귀추가 주목되며,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반대운동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도의회에는 사업청탁과 관련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근 의원(장수군)에 대한 문승우 도의회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직권 상정 건을 보고 받고 윤리특위를 열기로 결정했으며, 완주 전주 상생 조례안을 비롯한 3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만호 기자



시아 키엔 펑(SEAH KIAN PENG)싱가포르 국회의장 및 에릭 테오(Eric Teo) 주한싱가포르 대사 등 대표단 일행이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4박 5일간 일정 중 지자체 방문은 전북자치도가 유일하다. 사진은 펑 의장이 김관영 도지사(사진 오른쪽)와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싱가포르 국회의장단, 전북자치도와 협력 모색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추진... 지자체 방문은 전북이 유일

김관영 도지사와 문화·금융·산업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논의

시아 키엔 펑(SEAH KIAN PENG)싱가포르 국회의장 및 에릭 테오(Eric Teo) 주한싱가포르 대사 등 대표단 일행이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4박 5일간 일정 중 지자체 방문은 전북자치도가 유일하다.

방문단은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면담을 시작으로 전주대 교

일정을 진행했다. 양 측은 환담을 통해 문화, 관광산업, 금융 등 분야에 있어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 중심지이자 첨단산업 강국으로 우리 전북자치도와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만남이 양 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전

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아 국회의장은 "전북은 처음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자, 농생명,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와의 협력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아 국회의장은 지난 2006년 첫 국회의원 당선으로 다년간 싱가포르 정치에 몸담은 원로 의원으로 2023년 8월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일행은 23일 서울에서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이만호 기자

작년 전북 방문객 9864만명 전년비 0.3% ↑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 분석 결과... 가장 큰 방문 요인은 '음식'

전북을 찾는 방문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체류하는 시간도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을 상회하는 등 전북이 채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북 방문객 수는 9,8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0.3%(약 30만 명)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332만 명, 2022년 9,495만 명, 2023년 9,833만명에 해당한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 업체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를 발표하고 있다.

전북의 평균 체류시간은 2,784분(약46.4시간)으로 광역지자체 평균 2,374분보다 410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4년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다양한 이유로 전북을 찾았으며, 그

중에서도 '음식'(43.7%)이 가장 큰 방문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어 기타 관광(13.0%), 숙박(11.8%), 문화관광(10.6%)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전북 방문 외국인 수는 234만 명을 돌파했으며, 10만명 이상 방문한 지역은 군산(101만명), 전주(63만명), 익산(24만명), 완주(20만명), 김제(11만명) 순이었다.

/이만호 기자

행안부 중분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김제시' 최종 결정

군산시 행정소송 예고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

1차 심의도 진행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이 김제시로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군산시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심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

도로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시로 의결했다.

행안부는 이번 의결사안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 및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새만금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16.4km 길이로 지난 2020년 개통됐다.

한편 이날 새만금 동서도로 외에도 행안부 중분위는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1차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에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관할권을 주장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